

장수 역사, 가야 넘어 신라까지

최훈식 군수, 춘송리 무덤군·침령산성 등 찾아 발굴 성과 확인... “지역 이야기 널리 알려지는 계기”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9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신라 무덤군으로 밝혀진 춘송리 무덤군과 침령산성 등을 찾아 발굴 성과를 확인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춘송리 무덤군 발굴조사 중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 보고 받고, 유적의 가치와 향후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국가사적인 ‘침령산성’과 인접해 있는 ‘장수 춘송리 무덤군’은 무덤 내부에서는 굽다리 긴 목항아리(鬮附長頸壺), 굽다리 접시(高杯), 병(瓶), 토령(土鈴), 발형토기 등 22점의 신라토기와 쇠손칼(鐵刀子), 관못(管鉢) 등 9점의 철기가 출토됐다.

특히, 무덤의 입구에서 확인된 ‘훈’은 한국의 전통 공병 약기로 매장행위와 관련된 희귀한 유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 군수는 현장에서 ‘훈’을 직접 연주해 보여 유물의 가치를 제감하는 한편, 함께 출토된 유기물이 늘어붙은 토기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최훈식 군수는 “그동안 가야사에 집중됐던 장수 지역의 역사가 점점 사학적 범위를 넓혀 신라사까지 확대돼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장수의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9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신라 무덤군으로 밝혀진 춘송리 무덤군과 침령산성 등을 찾아 발굴 성과를 확인했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춘송리 무덤군에 대한 지정문화유산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 선정

군산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이후 연이어 사업 선정 국가산단 근로자·시민들에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올해 출범한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김민준, 이하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이 주관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군산문화재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이어 또다시 국비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2024 예술로 어울림’은 제14차 민생토론회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이 발족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단 내 근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인 25개 기초 지역 중 15개 지역이 선정됐다.

군산국가산업단지(1990년 착공돼 30여 년이 경과된 관계로 그간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유출과 취업기피로 인한 구인난이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번 ‘2024 예술로 어울림’ 선정을 계기로 군산국가산업단지가 군산에 기

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위해 오식도동에 건립된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한 군산문화재단, JB문화공간 등에서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문화, 디자인, 국악, 공예, 미술,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문화재단 김민준 이사장은 “30여 년간 군산과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와 근로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물리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산업단지 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문화가 있는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화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향후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과 신청 안내는 추후 재단 누리집과 SNS에서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재단(☎063-443-4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우진문화재단, 2025 청년 미술상 공모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이 ‘2025 우진청년미술상’ 공모에 나섰다.

20일 우진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함이다.

모집부문의 시각예술 전 분야로, 지원자격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45세 이하의 청년작가(1979년생까지 지원 가능), 개인전 3회 이상 개최한 자(아트페어 부스전, 갤러리 카페 등 제외)다.

선정인원은 2명이며, 선정 시 창작지원금으로 1인 500만원(정식 후 지원금 지급)을 지원한다.

재단 소장양식의 응모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포트폴리오와 전시관련 자료는 방문, 퀵, 우편접수를, 신청서는 전자우편(woojin7223@naver.com)으로 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7월 중 개별통보 및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원주미디어센터, 독립영화 ‘샤인’ 상영회

원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원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가 개봉을 앞둔 신작 독립영화 ‘샤인’의 상영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씨네마니도 상영회’를 주제로 오는 25일 저녁 7시 센터 내 상영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씨네마니도 상영회는 배급사인 (주)인디스토리 가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 개봉 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프리미엄 상영회다.

상영작인 ‘샤인’은 제6회 제주흔뚝독립영화제 개막작이자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페스티벌 초이스-장편 쇼케이스 부문 초청작이다.

할머니를 잃고 혼자 남은 한 소녀와 그녀를 염려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그려낸 영화다.

상영회 이후에는 박석영 감독과의 대화시간도 진행된다.

안충환 원주미디어센터장은 “상영회가 한국 독립영화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들이 지역의 관객들과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미디어센터(063-262-18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국비 1억 지원받아... 문화소외주민 대상 사업 추진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인구소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 ‘2024 예술로 어울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은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높이고 수도권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사업이다.

재단은 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고창군 지역의 농촌, 어촌, 갯벌, 습지 문화소외마을을 대상 사업과 어린이, 청소년, 육아

하는 주민, 이주외국인, 외국인근로자 등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문화소외주민 대상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15명 이내 수강생 신청을 받아 지역의 예술강사와 함께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 및 신청 안내는 추후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심덕섭 이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고창군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문화 격차를 완화하게 됐다”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익산 마한박물관,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체험 성료

익산시 마한박물관이 노인 대상 프로그램인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당초 계획 인원인 100명을 넘겨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마한박물관 전시실을 해설과 함께 돌아보며 익산의 구석기부터 마한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이어 마한 사람들이 금과 은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옥’을 활용해 장수를 기원하는 옥 목걸이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마한박물관은 노인 교통약자를 위해 학예사가 직접 단체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도 함께 진행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익산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체험을 운영해 많은 시민에게 한(韓)문화 중심지 익산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한박물관은 8월부터 어르신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하반기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소소한 일상이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행복

에바 할머니 특별展, 소리문화전당서 21일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전시로 마련한 ‘에바 할머니 특별전 : 에바 할머니, Amadando’가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시장 1F(갤러리 S.O)에서 열린다.

20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에바 할머니의 다양한 예술 기법과 형식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로, 유화, 드로잉, 도자기, 조각, 애니메이션 등 19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전주 전시만을 위한 ‘전주’ 주제의 신작이 추가 구성돼 있던 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전시 테마인 ‘안단도’는 ‘계속 걸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이며, 제목 그대로 그림과 창의성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 속 창의성의 여정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가 영감을 얻는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통해 방문자가 자신의 느낌, 기억, 환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구가 필요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잊고 있었던 감정과 포근한 기억들을 마주한다.

에바 할머니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작지만 소중한 오늘의 행복을 경험하며, 다시 내일을 살아갈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정서적 여행’을 제공한다.

특히 전주 전시를 위해 직접 전주를 찾아온 에바 할머니는 전시장 벽화 드로잉뿐



만 아니라, 관객들을 직접 만나는 팬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네이버, 카카오톡 예약하기,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티켓링크, 타임티켓, 야놀자에서 가능하다.

공연 관련 문의는 전화(063-270-800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은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만날 수 있는 주말 기획 공연인 2024 토요일국악나들이를 갖는다. (사진=국립민속국악원 제공)

국립민속국악원, 주말 기획공연 ‘토요일국악나들이’ 개최

29일, 정재 ‘춘앵전’ 등 감상... 내달 6일, 기악합주 ‘일침’ 등 선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만날 수 있는 주말 기획 공연인 2024 토요일국악나들이를 갖는다.

6월과 7월에는 우리 전통음악 예술의 멋과 흥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가운데, 이달 29일은 정재 ‘춘앵전’,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통곡 대목’, 기악합주 ‘적남’, 민요 ‘남도벚꽃노래, 신태노래’, ‘삼도설장구가락’을 감상할 수 있다.

7월 6일은 기악합주 ‘일침’, ‘살풀이춤’, ‘영

남농악가락’, 무용 ‘연흥무-부채춤’, 단막창극 ‘심청가 황성 올라가는 대목’이 펼쳐지고, 7월 27일은 ‘비나라와 설장구’로 문을 열고, ‘산조합주’, 무용 ‘대신무’와 신민요 ‘사철가, 휘어능청 달타령’을 비롯해 단막창극 ‘적벽’을 만날 수 있다.

예약이나 공연 소식은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및 전화(063-620-2329)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살맛나는 굿소리 피어나는 웃음 꽃’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 서울놀이마당서 공연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회장 이승철)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놀이마당에서 ‘살맛나는 굿소리 피어나는 웃음 꽃’을 주제로 초청공연을 실시했다.

진안중평굿보존회는 1992년 결성하여 정월대보름굿, 설맥이굿 등의 중평굿 가락을 보존하며, 2020년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서울놀이마당 초청공연은 1988년, 2006년 공연 이후 세 번째 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수도권에 진안 중평굿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놀이마당 공연장은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하여 우리 민속과 전통놀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84년 건립, 매주 토, 일요일 상설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승철 회장은 “이번 공연으로 특색있는 중



평굿 가락과 함께 진안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평굿 공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